

대덕밸리 우수인력 1백명 '급구'



대덕밸리가 우수인재 100명을 채용키로 하고 인재사냥에 나섰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는 '2003 대덕밸리 공동채용캠프'의 공식 리크루트사이트(www.ddjob.co.kr)를 오픈하고 12월 4일까지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와 대전시,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동채

용캠프에서는 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20여개 회사에서 전문연구인력 및 경영지원 인력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채용캠프에는 위월드, 티에스온넷, 이머시스, 인터포스, 아이피에스, 메닉스 등 대덕밸리 스타벤처기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각각 국내외 영업인력, HW 및 SW 연구인력 등을 채용한다.

공동채용 홈페이지에는 자세한 모집요강과 함께 지난해 취직한 선배들의 소감, 참가회사들의 사내풍경 및 직원들 사진 등을 실어 구직자들이 기업 분위기를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을 원하는 경력자 또는 대학 졸업생(예비)은 공동채용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 6일 양일간 목원대학교 대덕과학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03 대덕밸리 채용박람회'가 끝난 후 공동채용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신제품 · 신기술 ■

이비테크, X-선 이용한 화물검색장치 개발

대덕밸리 벤처기업 이비테크(대표 한범수)는 고출력 X선을 이용한 대형 화물 검색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대형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X-선에 의해 내장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첨단 과학검색장비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일부국가에서 테러물품과 밀수품 적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 X-선 검색장비는 수 분이내의 검색시간과 비개장검사를 통해 내장물품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고 총기류 등 테러물품과 농수산물 등 밀수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X-선 검출센서와 데이터 획득 시스템 등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기존 제품에 비해 50% 이상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공간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검출기의 피치 간격을 세계에서 가장

좁은 수준으로 설계해 정밀성과 해상도(4096×1536 픽셀)가 매우 높다.

한범수 대표는 "이 장비 개발로 수입 대체효과와 물론 사후관리, 확장성, 가격 등 여러 부문에

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해외수출에도 상당한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